

2008년 7월 4일 금 말씀

동양 사람들은 내 그림을 별로 안 알아주는데 유럽 쪽에서는 다릅니다. 2분 정도에 작품이 하나 나옵니다. 늙으면 일 못하니 젊었을 때부터 빨리 빨리 해놔야 합니다. 젊었을 때 해야 됩니다. 내 그림은 고통 중에 그린 걸로 유명합니다. 그래서 그리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힘듭니다.

중국에 제 백석이라고 피카소처럼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원래는 건축가였고 그림을 60이 넘어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 사람 그림이 엄청나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쌉니다. 그 사람이 그림도 얼마 안 그렸다고 들었습니다. 그 그림같이 미술 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자꾸 그려내야 합니다. 그릴 것이 너무 많습니다. 그런데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뭘 그릴 줄 몰라서 놀고 있습니다. 감나무 밑에서 어머니한테 기도 받고 떠나는 모습이 이게 유명한 구상입니다. 내가 구상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. 첫째는 구상입니다. 그림이고 건물이고 그 어떤 것도 첫째는 다 구상이 중요한 것입니다. 내가 빨리 그리면 1초에 하나씩 그릴 수 있습니다.

애들 잘 좀 신경 써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. 관리는 나간 애들, 잘 안 나오는 애들을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. 섭리에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. 가다가 없어지는 애들이 있으니 잘 찾아서 관리해야 합니다. 말씀에 늘 관리에 대해 나가니까 말씀 중심해서 해야 합니다. 계속적으로 잘 밀고 나가야 합니다.

중고등부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. 시대에 맞게 길러야 되기에 공부 할 땐 공부하게 해줘야합니다. 공부하는 애를 무조건 교회만 나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. 그렇게 되면 그 애의 앞날을 다 막는 것입니다. 잘 해서 잘 이끌어주어야 합니다. 잘 가면 좋은데 한 번 잘 못되면 잘 못 갑니다. 그러니 조심해서 잘 기르도록 하십시오. 지금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잘 길러야 합니다.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교단에 이야기 하도록 하십시오. 다 지원해 줄 것입니다. 내가 나가면 금방 2만 명 만들 수 있습니다. 한 사람이 꼭 한 명씩만 데리고 오라고 하면 데리고 옵니다. 뭐든지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. 지원받으면 무조건 전도를 해야 합니다.

내가 기도할 때 아픈 사람들도 같이 넣어서 기도해 줍니다. 그래서 나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. 하나님의 역사입니다. 병이 나은 사람은 간증을 해야 합니다.

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. 벌써 13-15년 전에 이야기 한 것 들이, 예언 한 것 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증거 했어야 했습니다.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. 원자, 분자.... 이것은 일본사람이 가져가서 발표했고 이것 뿐만 아니라 90년 초에 미국 갔을 때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. 증거 안 하면 다 뺏기는 것입니다.